

「濟州島研究」 9:271-275, 1992

## 濟州島史 연구에서의 考古學의 역할과 방향\*

이 청 규\*\*

고고학은 과거 사람들이 남긴 물질적 자료를 통하여, 문화사(culture history)를 재구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문헌사학과는 연구 대상을 달리할 뿐, 과거 역사를 밝히고자 하는 목적은 같다. 그러나 문헌사학은 넓은 의미의 인간 역사중 문자기록 출현 이후를 밝히는 데 한정하지만, 고고학은 문자기록 이전의 선사시대는 물론이거니와 문자기록 이후의 역사시대라 할지라도, 문헌으로 밝힐 수 없거나 분명하지 않은 시대상을 재구성하는 데 도움을 준다.

제주도 역사에서 문자기록은 기원후 3세기 중국 진나라 진수의 삼국지 위지 동이전 주호 기록부터 전하기 시작한다. 삼국지 기록 이후, 중국의 후한서, 수서, 당서 그리고 일본의 일본서기 등 외국 기록에 먼저 제주 관계 기록이 나온다. 우리나라 기록에 처음 제주가 등장하는 것은 삼국사기로 시기적으로 따지면 12세기 중세 이후이며, 본격적인 기록은 고려사, 세종실록 지리지 등 조선 초기 이후 기록이다.

선사와 역사시대 중간에 원사시대가 있다. 원사시대(proto-history)라

\* 이 글은 濟州島史研究會 제1회 연구발표회(제주시 우당도서관, 1989년 7월 8일)에서 발표되었던 것을 정리한 것이다.

\*\* 제주대학교 사학과

함은 주변 국가의 기록에 단편적으로 등장할 뿐, 자체 기록을 갖지 못하는 시대를 말한다. 제주도사에 있어 이러한 원사시대는 대체로 앞서 보듯 기원 후 3세기부터 11세기에 이르는 기간으로 이해된다. 이 기간은 주호 때인 탐라의 형성기 이후부터 고려 중앙 집권국가의 지방으로 복속되기 이전이다. 이 원사시대에 문자기록이 충분하지 않고, 그나마 문자기록은 대외 관계에 치중되고 있기 때문에 이 시대의 제주도민의 총체적인 생활 양식 및 문화를 구명하는 데 고고학은 문헌사학 이상의 역할을 한다.

제주도가 고려의 지방으로 편입된 역사시대라 하는 12세기 이후도 제주도에 있어서 그 기록은 중앙과의 관계에 치중되고, 제주도민의 삶을 충분히 밝혀주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선조들이 남긴 물질 자료를 대상으로 하는 고고학적 접근은 이 시대에 와서도 여전히 역할을 한다. 그러나 제주도의 이 시대를 밝히는데 역사고고학은 어디까지나 문헌사학에 보조적인 역할을 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이렇게 하면 고고학의 연구 대상을 삼는 시대적 폭은 문헌사학의 그것 전부를 포함하는 셈이 되지만, 고고학이 제주도사 연구에 전적인 책임을 지거나, 큰 역할을 담당하는 것은 선사 및 원사시대이다.

절대 연대로 따지자면 12세기 이전으로, 제주도가 고려의 군으로 편입되기 이전의 시대이다. 이 때까지의 제주도사의 시대 및 시기 구분은 고고학적 연구 성과가 중요한 역할을 한다. 지금까지 알려진 제주도 상고시대의 시기구분을 확인된 유적을 표지로 하여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단 이 시대의 상한은 충적세 이후 제주도가 섬으로 된 1만년전으로 한다.

- 1) 선사시대 : 1기(고산리 시기) 2기(북촌리 시기) 3기(상모리 시기)
- 2) 원사시대 : 1기(곽지리 1기) 2기(곽지리 2기)

지금까지 제주도 고고학 연구는 이러한 시기구분의 틀을 마련하는 데, 주된 초점을 맞추어 왔다. 이러한 통시적인 시기구분론이 짜여지지 않고서는 이 시대의 제주도사를 체계적으로 접근할 수가 없기 때문이다. 이러한 시기

구분의 체계를 세우고자 하는 것 말고는, 뚜렷한 연구조사 목적과 인적, 물적자원을 제대로 갖추지 못하고 지금까지 제주도 고고학 연구 조사활동이 이루어져 왔던 것이다.

엄격한 학술적 고고학(academic archaeology)의 역할을 수행하였기 보다는 계약 고고학(contract archaeology)의 수준에서 학술적 고고학에 도달하려 하는 어정쩡한 상태이었다.

계약 고고학의 입장은 극단적으로 말하면, 전혀 예기치 않은 태풍이나 홍수로 파괴되는 도로의 복구 공사에 비유될 수 있다. 그나마 예산과 계획 없이 일이 터질 때, 장비와 인원, 기술이 충분하지 않은 부실 영세업자가 허겁지겁 덩핑으로 하는 공사처럼, 제주도의 지금까지 중요 발굴의 전부가 그렇게 하여 이루어졌던 것이다. 이제 제주도 고고학은 제대로 된 학술 고고학의 수준에 올라서야 한다. 뚜렷한 학술 목적이 있고, 그에 걸맞는 모든 자원과 여건이 확보된 상태에서 고고학적 발굴이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제주도 고고학에서 대강의 시기구분은 윤곽이 잡혔지만 각 시기별로 물질문화의 여러 부면이 제대로 밝혀지거나 분석되지를 못했다. 각 시기에 해당하는 토기, 석기, 골각기 등의 인공유물(artefacts)이나 집자리, 무덤 등의 시설물(features)이 제대로 밝혀지지 못했다. 이를 바탕으로 해석되는 각 시기의 주거, 경제, 사회 등의 행위가 거의 밝혀지지 못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러한 물질적 자료의 수집과 그를 통한 기초적인 문화 양식을 복원 해내는 것이 무엇보다 우선 순위에 있는 제주도 고고학의 과제이다.

한편으로 시기구분 혹은 편년론에 입각한 문화상의 추출과 분류는 전통 고고학(old archaeology)에서 큰 비중을 차지했지만, 신고고학(new archaeology)에서는 단지 연구의 초보 단계에 불과하다. 또한 고고학적 유물과 유적이 형태적으로 다른 지방 어느 것과 비교하고, 계통 및 전파를 따지는 것도 전통고고학에서는 중점을 두었지만 최근의 새로운 고고학에서의 관심은 이를 뛰어 넘고 있다. 전파 및 계통 자체보다 중요한 것은 문화변천

과정에 대한 설명으로, 집단 이주에 의한 것인지, 교역에 의한 것인지를 구명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증명하기 위한 증거의 확보, 논리적인 해석이 요구되는 것이다.

고고학은 문화진화론적 입장에서 서 있다. 문화는 시기의 흐름에 따라 변화한다. 그 변화를 유발시키는 데, 중요한 동인은 많다. 그 동인에는 앞서 말한 교역, 이주, 혹은 정복 등 외부적인 것과 아울러 내부적인 것이 있다. 문화를 환경에 적응하는 메카니즘으로 이해한다고 할 때, 제주도 내에서 생태적 환경과 문화와의 관계 연구는 무엇보다도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한다. 그러나 제주도에서 과거의 생태적 환경과 그 변화에 대한 연구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그러므로 이에 대응한 문화 변동론적 접근은 외부적인 관점에서만 접근되고 있고, 제주도 환경과 문화의 관계에 대한 설명 또한 피상적이고도 막연한 추리로 일관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고고학에서는 유적에서 발굴된 인공유물(artefacts)만 관심돌 것이 아니라 옛날 환경 자료, 즉 식생, 동물상을 밝혀줄 생태유물(ecofacts)에 대한 조사 연구가 필요하다. 이러한 유물은 도내 곳곳에서 발견되고 있는 패총유적에서 쉽게 얻어질 수 있다. 그리고 지형 및 지질 양상과 고고학적 문화유적 유물의 관계에 관심이 두어져야 한다. 이러한 생태적, 지리적 고고학은 말할 것도 없이 자연과학자와의 공동 연구를 전제로 한다. 유감스럽게도 제주도에에는 이에 관심을 두거나 전공으로 하는 동식물 및 지리학자가 드문 상태이어서, 이 분야에 관심을 가진 자연과학자가 나서기를 기대한다.

20세기 고고학은 기술로서가 아니라 학문으로 자리 잡고 있고, 그것도 그 영역과 방법론이 뚜렷한 과학으로서 발전하고 있다. 고고학의 주된 목적인 과거의 문화를 복원하는 데, 증명되지 않고, 비논리적인 방법은 배제되고 있다. 여기서 말하는 문화는 가시적인 물질 문화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경제, 사회 그리고 신앙을 포함한다. 전통 고고학에서는 이 세부문은 접근이 어려운 것으로 이해되어 왔다. 그러나 문화가 여러 하위문화로 구성되고, 그것이 서로 유기적인 관계를 갖고 있다는 문화에 대한 체계론적 인식

이 1960년대 이후 신고고학의 바탕이다. 이러한 입장에서 제주도 고고학도 물질문화에 관련되거나 반영되어 있을 경제, 사회 그리고 신앙의 부문에까지 접근하여야 할 당위성이 있다. 이러한 입장은 모든 현상과 원리가 물질에 반영되거나 나타난다는 문화 유물론적인 철학적 사고로도 뒷받침된다.

그 접근의 방법으로 일반론적 유추(general analogy)와 직접적인 유추(direct analogy)가 있다. 일반론적인 유추라 함은 예를 들어 석기시대 제주도민의 생활양식을 이해하는데, 태평양 등지의 다른 섬 지방에 현존하는 원주민의 물질문화에 반영된 생활양식을 통하여 유추하는 방법이다. 직접적인 유추는 과거의 전통이 지금까지 짙게 남아 있는 문화집단에 있어, 현재의 관찰을 통하여 과거의 생활 양식을 논리적으로 유추하는 방법이다.

이러한 유추 방법에는 보완되어야 할 많은 문제점이 있다. 그러나 이러한 방법론을 통하여 과거 문화를 복원하는 것이 중요하게 인식되는 것이 현대 고고학이다. 이러한 입장에서 우리나라 어느 지역보다 과거의 문화 전통이 비교적 많이 관찰되고, 그럼으로 해서 민속학의 발달이 두드러진 제주도에서 이러한 접근이 시도되어야 한다. 다시 말해서 고고학에서 물질 문화를 다루는 방법론과 시각을 민족지 자료 혹은 민속학 연구 성과와 만나게 하는 것이다. 이러한 연구를 민속고고학(ethno-archaeology)이라 하는데, 오늘날 세계 고고학을 주도하는 아메리카 고고학의 출발이 이에 있는 것이다.

ethno-archaeology는 다른 말로 living archaeology라고 한다. 전통적으로 사라진 과거만을 연구하는 우리나라 고고학에 신선한 활기를 불어넣어 줄 이 분야는 잘만 하면 제주도에서 꽃을 피울 수도 있는 것이다. 민속고고학은 세계적으로 이미 1960년대 이후 체계화된 학문 분야로 성장하고 있다.

고고학 연구가 제주도에서 활발하여질 때, 제주도사 연구는 시대적 균형을 찾을 수 있다. 상고시대의 공백을 메꾸어 그 발판 위에 중세 그리고 근·현대의 역사가 이루어졌음을 밝힐 수 있다. 그리고 그 연구가 자연환경과 문화의 관점에서 생태적 접근이 이루어지고, 현재의 문화와 과거 문화가 만나는 민속 고고학이 제대로 접근될 때, 제주도의 진정한 문화, 삶의 역사가 밝혀질 수 있을 것이다.